

빛을 주는 실로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소식지의 키워드는 바로 '행복'입니다.



151호 표지에는 백일초라고도 불리는 백일홍을 넣었는데요.
꽃이 100일 동안 붉게 핀다 하여 백일홍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행복이라는 꽃말도 지니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세분화된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행복'을 찾고 있을 텐데요.
이에 100일 동안 붉게 빛나는 백일홍처럼 자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두를 응원하며 이번 소식지를 준비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로암 소식을 지금 만나러 가실까요?

- 모두의 '찐 행복'을 찾기 바라며, 편집자 드림 -



Contents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2022 VOL.151



04 자신만의 '소확행'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06 실로암 유튜브채널 소개

07 실로암 스케치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 실로암학습지원센터
- 설리번학습지원센터 & 실로암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 효명장애인보호작업시설 &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12 빛을 주는 실로암 이야기

- 2022년도 '상반기 효명장학금 수여식' 개최
- 시각장애아동의 점자 학습을 위한 점자달말카드
- 시각장애 대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대역사업>
- 관현맹인전통예술단 경북궁 특별기획공연 3인 3색 국악공연 <세종의 '봄'을 품다> & "10년을 넘어 '발밤발밤'" 진행
- 4차 온택트 세미나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일본정부의 장애인정책위원회 활동과 역할'
- 탄자니아 시각장애인 교육지원사업 & 우간다 시각장애학생 점자교과서 지원 현장 모니터링 및 현지 점역·교정사 역량강화교육 진행

24 느리지만, 나답게, 아름답게. 희망의 '꽃'을 피우다
국내 1호 시청각장애인 박사 조영찬님의 이야기

26 공감, 재미, 콘텐츠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공연
시각장애인 문화예술공연과 함께하는 <2022년 장애인식개선 토크콘서트> 진행

28 전문가가 알려주는 알면 쓸데 있는 꿀팁 정보
해외 여행할 때 상황별로 유용한 나라별 '여행 회화 꿀팁'

30 시각장애인들의 소소한 이야기
시소TV 비하인드 스토리

32 눈 건강에 관심 있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 안구건조증편

34 후원 안내
2022년 1월~6월 후원자 명단 & 후원금 내역

“빛을 주는 실로암”을 온라인에서 만나는 방법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접속 → 소식알림 → 관보

“빛을 주는 실로암”을 음성으로 만나는 방법

실로암포네 접속 → 로그인 → 2.매거진 → 9.빛을 주는 실로암
ARS 02-880-0900 → 2번 → 9번

“빛을 주는 실로암” 문의

- 1 홍보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나눔홍보팀 02-880-0864 /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휴무)
- 2 이메일로 문의하기
silwel2@nate.com / 평일: 09:00~18:00(주말, 공휴일 휴무)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해피빈



페이스북

<빛을 주는 실로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이야기 통권151호

발행일 2022년 7월 25일 이사장 김선태 발행인 김미경 편집인 함요한, 이지영, 남지현 발행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주소 0875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TEL 02-880-0500 FAX 02-887-1120 E-mail silwel2@nate.com 홈페이지 http://www.silwel.or.kr 문의 나눔홍보팀 02-880-0864

자신만의 '소확행'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확행: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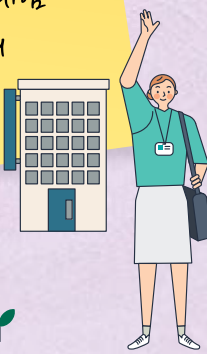
이경림님

행복이요? 활동지원사로 일하면서 마스크 벗고 야외를 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이제는 야외든, 해외든 어디든 갈 수 있을 거라는 게 힐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복지관 프로그램들이 평일뿐 아니라 주말에도 더 활성화된다고 하니 반가우면서도 다양한 야외 체험 프로그램들이 기다려지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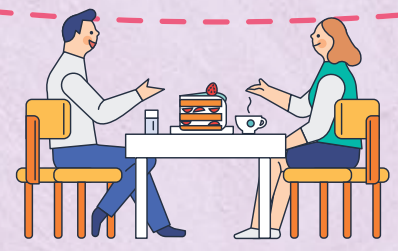
박양숙님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알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입니다. 안마사로서 추직이 어려웠는데, 내일 면접이 잡혔어요. 앞으로는 모든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프로그램들 중에 야외 체험 프로그램들이 기대되면서 벌써부터 행복해지는 기분이 드네요.



류재훈님

맛있는 빵과 케이크를 먹는 것이 제게는 소소한 행복이에요. 이제는 직접 맛집 탐방도 다닐 수 있게 되어서 더 행복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정보화 교사로서, 제 교육을 들으셨던 이용자분들과 카페모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 나누는 것도 일상 속 행복 중 하나네요. 이제는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과 재미있는 대화를 나눌 테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메리골드님(익명)

아들이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에요. 아이가 항암치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 시력이 나빠져서 실로움을 찾게 되었지요. 긍정적인 아이 덕에 어두운 터널을 겨우 벗어나 현재를 살고 있네요. 제게 있어 행복이란 저희 집 층 화단과 옥상에 심은 블루베리, 토마토와 '행복'을 뜻하는 백일홍, 메리골드꽃..... 그 아이들에게 물도 주고 날아오는 새도 바라보는 그런 일상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가 아프기 전에는 일하기 바빴고, 아픈 후에는 간호하느라 바쁘게 지냈는데 저 스스로에 대한 우로의 의미로 이번엔 꽃을 심었어요. 새싹에 물을 주고 새싹을 바라보니 그전에는 기대되지 않던 날들이, 다음 달이 그리고 다음 계절이 기대돼요. 곧 꽃을 활짝 피울 테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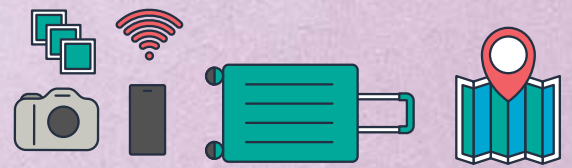


모상만님

현재 복지관에서 장애인 접근성 관련 지하철역 모니터링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업무로 인해 서울시 환승역 40개를 가야 하는데, 움직이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행복으로 느껴져요. 중도실명 후, 19년도에는 점자를 처음 배워서 교정사 시험도 보고 현재는 점자 모니터링 근무도 하고 있어요. 복지관하게 움직이다 보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직장 없이 집에 있거나 추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60살 넘은 제가 가만히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게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게 뿌듯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제 노력으로 다른 분들의 인정을 받고 있어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이 행복하답니다.

한명희님

활동지원사로 복지관에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나와는 다른 세상이 있구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가 생각보다 잘 되어있구나.'라는 점이었습니다. 저 스스로의 소소한 행복으로는 건강하고 재미나게 일상을 지내는 것이 되겠네요. 그리고 친구랑 술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소소한 여행도 준비 중입니다. 이것 또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겠지요.



실로암의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 둘러오세요!



실로암탐구생활

<https://www.youtube.com/channel/UCQArgTwASMIEiv6TYN4LU5g/featured>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시소TV 시각장애인들의
소소한 이야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bpcgxAZ_VS89xr8eWBdbzg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관현맹인전통예술단

<https://www.youtube.com/channel/UCus3RXmGVTnVmsjk51sW0Nw>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효명아트홀

<https://www.youtube.com/channel/UCtgTxHyLogxvEgy1v2bnkQ>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실로암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https://www.youtube.com/channel/UCBqqKeNQikMwE5kMfN4Mcg>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실로암장애인
자립생활센터

<https://www.youtube.com/channel/UCJeq7SGX4ZDeEmPZGTTkBVg>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 입문자를 위한 '한누네(한발짝 누구든지 시각장애인 네트워크)'

재활정보, 보조기기 활용법, 기능시각 향상훈련,
재활코칭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조직화사업 '시각장애인과 관악구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동아리모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민간단체지원사업 '슬기로운 어르신생활'

전국 290명 노인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뉴노멀 시대
적응에 필요한 맞춤형 ICT교육(시기기, 키오스크, 스마
트폰 등)과 실버제조, 음악교실 등 다채로운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기초재활훈련생 가족참여수업



2022년 바다낚시 충남 태안군 방포항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이병돈 대표)과의 장애인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진행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 팽동재단 업무협약식

네팔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과 베트남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교과서 제작 지원, 그리고 라오스 현지 백내장 환자의 수술 지원을 위한 안보건의원사업으로 협약하였습니다.



음악재활아카데미

전문적인 음악교육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질 높은 여가활동은 물론 음악활동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음악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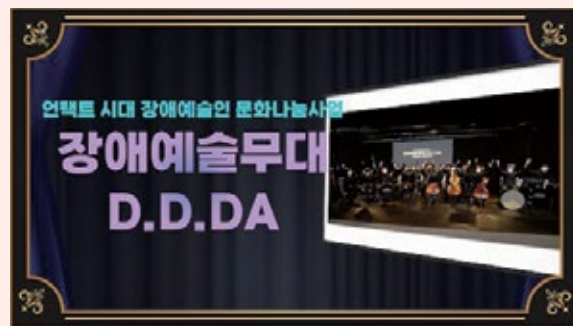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장애 당사자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사업'

장애인권·인식개선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시각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양성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엔택트시대 장애예술인 문화나눔사업 장애예술무대 D.D.DA(장애예술무대 첫발을 디디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으로 3월부터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시각장애를 넘어 모든 장애 유형 예술인을 대상으로 무대공연 기회제공과 영상제작 및 유튜브 채널 게시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자아성취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실로암학습지원센터

2022년 외국어회화교실 문화수업



제3기 오디오북 전문 낭독 성우 아카데미



성인문해교육 '손으로 만나는 스마트 문해교실'

문해능력 향상에 관심이 있는 중도 시각장애인 6명에게 수준별 점자 읽기 및 쓰기 지도, 도서관 앱 활용을 통한 정보 탐색 등 다양한 문해교육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터치로드-남산가는 길' 촉각지도 활용교육

본 촉각지도 '터치로드-남산가는길'은 남산타워와 남산둘레길에 대한 정보로 이루어진 3D 형태의 촉각지도로 보급하였습니다. 남산을 산책하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촉각지도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직장인과 대학생의 직무 및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스쿨 - 레벨업! 스펙업! 프로젝트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실로암이러닝센터를 통해 '레벨업! 오피스 교육', '스펙업! 한국어 능력 검정 심화 자격증 대비반' 등 시각장애 직장인과 대학생의 직무 및 자기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VOD와 실시간 라이브 강의 형태로 제공하였습니다.



* 실로암학습지원센터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리번학습지원센터 & 실로암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최중증 시각발달장애성인 낮활동지원사업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공모사업 시각장애자녀와 함께하는 가족 탄력성 강화 프로젝트 '우리 가족 Power Up 시즌 II'

시각장애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 관리 및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족 탄력성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가족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시각장애학생 통합캠프 '너나우리 시즌2'

통합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5차 현장체험학습

시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양평 임실치즈마을에서 피자 만들기, 산양 먹이주기, 황순원 문학관 관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각발달장애 성인지원사업

평생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 동물매개교실, 운동발달교실, 그룹 난타교실, 그룹점핑교실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로적성개발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미래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유아 기초학습지원을 위한 시각장애 중심적 (visual impairment-centered) 교재교구 개발사업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의 지원으로 전국에 있는 만 5~7세 학령기 준비단계의 시각장애유아를 대상으로 시각장애 중심적 기초학습지원을 위한 교재 및 교구, 영상, 가이드북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교육

한소네,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학습하여 정보습득 및 SNS 소통을 하고자 하는 시청각장애인 대상으로 1:1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청각장애 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 손가락점자 통역사 양성교육



점역·교정사 자격증 3급 이상을 취득한 점역사들을 대상으로 손가락 점자 단어 연습, 문장 읽고 쓰기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손가락 점자 통역사를 양성하였습니다.

권익옹호 및 인식개선사업 - 자조모임 '달팽이놀이터'

농기반의 시청각장애인과 맹기반의 시청각장애인이 자조모임을 통해 서로의 장애 유형 및 의사소통 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게임 활동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설리번학습지원센터와 실로암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 효명장애인보호작업시설 &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2명의 중증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남권 7개 권역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 파견되어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전승공연사업 '국악인 라이브 콘서트'



자조모임

시각장애인 자조모임 4그룹을 공모, 선정하여 당사자들의 다양하고 주체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 직업능력개발훈련 진행

2022년 상반기 훈련 5개공과(바리스타카페창업, 베이커리창업, 안마지압창업, 장애인권·인식개선 전문강사양성, 장애인점역교정사)을 5개월 동안 진행하였고, 훈련생 2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실로암인더스트리 신제품 출시

실로암인더스트리에서는 원격제어로 고장 유무 확인,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IOT 및 BLE 기능을 탑재한 신 개념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와 저시력자 및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도와주는 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열 손실 없이 순환시키고 공기 중의 각종 유해 물질을 차단시켜주는 공기순환기 출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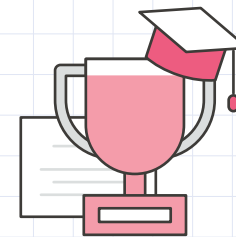
동료지지

기초재활훈련 중인 중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용 및 지지를 위한 집단동료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빛을 주는
실로암 이야기 1

2022년도 '상반기 효명장학금 수여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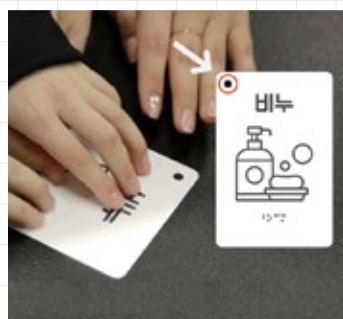
문의: 기획통합사례지원팀
02-880-0520~3

지난 2월 16일, 오후 4시 복지관 강당에서 '2022년도 상반기 효명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수여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 참석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 * 이번 상반기 효명장학금 수여 현황으로 국내 시각장애 대학생 12명에게 총 3천 9백 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키르기스스탄, 탄자니아, 우간다, 네 팔)에는 장애인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18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효명장학금은 김선태 목사(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이사장, 실로암안과병원장), 김병규 회장(주)AMO그룹), 김건철 장로(실로암의료복지선교연합회 총재), 태재연구재단, 정명철 목사(도림교회), 실로암안과병원 등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 김선태 목사는 장학생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지식이 자신을 발전시킨다.”라고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잠언 1장 5절(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말씀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 * 특별히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는 선배 장학생 강민영(2021년 5급 공채 교육행정 수석)씨가 참석해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로 5급 공무원 수석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자신의 스토리를 전하며 장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어 축하공연으로는 시각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드림예술단이 'You raise me up' 과 'Isn't She Lovely'를 연주하며 자리를 빛냈습니다.
- * 한편, 김선태 목사는 1978년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맹인선교부에서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시작하였고 2010년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효명장학사업'으로 재시작한 이후로 이번 2022년 상반기 수여식까지 시각장애학생 1,402명에게 약 22억 2천4백 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 효명장학사업은 국내에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성이 반듯한 시각장애 대학생과 개발도상국의 장애학생을 발굴하여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하고 있으며 장학생들은 실제로 정계, 학계, 종교계, 예체능계 등 각계각층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적 리더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효명장학사업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빛을 주는
실로암 이야기 2

시각장애아동의 점자 학습을 위한 점자날말카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점자날말카드'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k7HW3ihk8oo&t=104s>



문의: 설리번학습지원센터
02-880-0610~6

설리번학습지원센터 한국학생점자도서관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점자출판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점자날말카드를 제작했습니다. 특수교사, 사서, 점역사 등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제작한 점자날말카드는 시각장애아동이 점자를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 점자날말카드의 앞면에는 점자가 돌출되어 있고 뒷면에는 단어의 점형(점자의 모양)에 대한 풀이와 설명이 있어 점자를 모르는 부모, 교사도 아동과 놀이를 통해 교육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시각장애가정과 맹학교, 유관기관에 점자날말카드, 활용 가이드북, 활용영상을 함께 보급하고 있습니다.
- * 설리번학습지원센터에서는 점자를 익힌 시각장애아동은 자신감과 독립성을 얻을 수 있지만 점자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고 부모들도 점자에 대해 알지 못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점자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혹은 교사)가 점자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아동과 놀이를 통해 점자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점자날말카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 * 한국학생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 학생을 위한 전문도서관으로서 시각장애인 학생의 복지와 자립을 위해 교육, 도서 및 교구 제작과 보급, 학습지원, 점자교재 개발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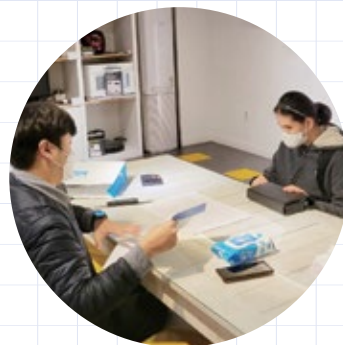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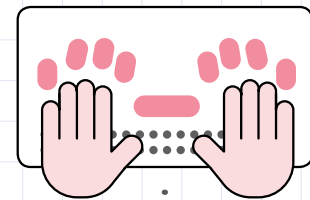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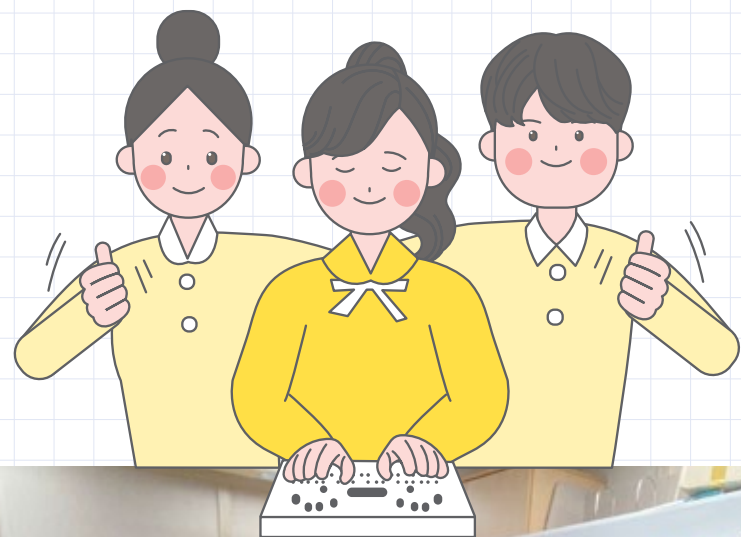
2 점자날말카드 소개
점자날말카드는 100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동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단어를 선정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앞면에는 단어의 그림과 한글 표기, 점자의 점형이 돌출된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뒷면에는 점자의 점형에 대한 설명과 단어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위
가위를 절개로 풀면
[가위]입니다.
1004 804 204 204 204
+10 204 204 204 204
+1 204 204 204 204
704 204 204 204 204
가위 804 204 204 204
8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3 점자 학습 콘텐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 만든 한글점자 시리즈
[축적으로 이해하는 나의 첫 한글점자 1판] 인명카드요! 저는 용이예요
[축적으로 이해하는 나의 첫 한글점자 2판] 한글 자음편

빛을 주는
실로암 이야기 3

시각장애 대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대여사업



문의: 정보기기지원팀
02-880-05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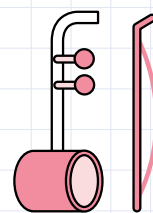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 대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제공하는 워드프로세서, 웹브라우저, 이메일 등의 기능을 담고 있는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U2), 저시력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확대독서기(스노우) 등 시각장애이용 보조공학기기를 대여하였습니다. 또한 음성을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학생들을 위해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탑재한 노트북(JAWS Book) 상시 대여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특히 'JAWS Book'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진 스크린리더 소프트웨어인 'JAWS'와 '노트북'을 결합한 기기로, 본 복지관에서 'JAWS Book'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Launcher를 자체 개발해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JAWS를 처음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사용자도 쉽게 JAWS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실로암의 온라인 플랫폼인 아이프리(문자 기반 정보 제공, 실로암포네(음성 기반 정보 제공), 실로암이러닝센터(평생교육 학습 사이트) 등의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JAWS Book'을 대여해 사용하고 있는 대학생 이성재(대구대 초등교육학과)씨는 "학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트북은 꼭 필요한 기기인데 스크린리더도 탑재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학습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빛을 주는
실로암 이야기 4

관현맹인전통예술단 경복궁 특별기획공연 3인 3색 국악공연 〈세종의 '봄'을 품다〉 & “10년을 넘어 『발밤발밤』” 진행



문의: 관현맹인팀
02-880-06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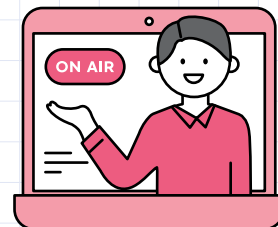
관현맹인전통예술단과 문화재청 공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4월 20일 오후 3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경복궁 내 집경당에서 경복궁 특별기획공연인 3인 3색 국악공연 〈세종의 '봄'을 품다〉를 개최하였습니다.

- * 이번 공연은 지난 2021년 경복궁에서 최초로 진행된 장애인 예술단 공연에 이은 두 번째 공연으로, 600년 전 세종 시대의 관현맹인 제도를 경복궁이라는 동일한 역사의 현장에서 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 이번 공연에서는 특별히 관현맹인전통예술단원 중 세 명의 연주자가 주축이 되어 전통 성악의 한 갈래인 정가, 거문고, 대금 등의 악기로 3인 3색 공연을 선보였으며, 각 프로그램 사이에는 연주를 하는 단원들이 관객들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며 공연을 진행하는 소규모 전통국악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 * 6월 16일에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예술감독으로 10년간 함께한 변종혁 예술감독의 퇴임을 기념하는 공연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후원을 받아 “10년을 넘어 『발밤발밤』”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 *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정악합주 '만파정식지곡(취타)', 판소리 수궁가 중 '봄 내려온다'(봄 내려오는 대목, 해금산조 '서용석류 해금산조', 여창가곡 '우락'과 박경훈 작곡의 '산책'이 초연되었습니다. 해금협주곡 '방아타령'에서는 변종혁 예술감독이 해금 독주로 무대에 올라 단원들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특히 마지막 순서인 타악합주 '천·지·인'에서는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모든 예술단원과 객원단원이 참여하고 박은하 지도위원이 구성한 무대로, 각각의 소리를 하나로 이루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빛을 주는
실로암 이야기 5

4차 온택트 세미나 '시청각장애인당사자로서 일본정부의 장애인정책위원회 활동과 역할'



순가락침자로 대화하는 모습



문의: 실로암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02-880-0650~6

실로암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는 지난 5월 2일, 오후 3시~5시까지 <4차 온택트 세미나>를 온라인(Zoom)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 이번 온택트 세미나는 '시청각장애인당사자로서 일본정부의 장애인정책위원회 활동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현재 일본 장애인정책위원회 위원이며 사회복지법인 전국맹농인협회 이사인 카도카와 신이치로씨가 강연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진행은 실로암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정지훈 센터장이 맡았으며 동시통역은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서울맹학교 박동해 교사가 함께하였습니다. 온라인(Zoom)을 통해 진행된 이번 온택트 세미나는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을 지원하였으며 실로암포네에서도 실시간으로 청취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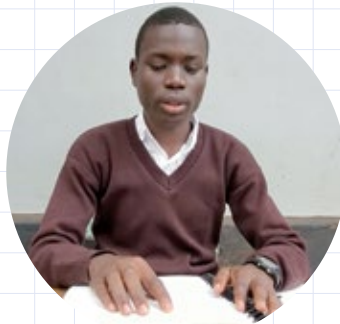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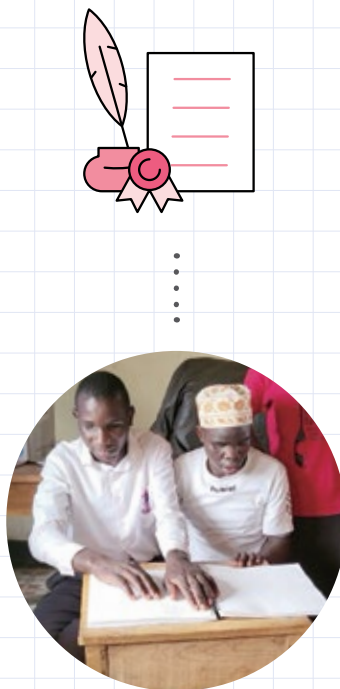
* 온택트 세미나의 강사로 초청된 카도카와 신이치로씨는 현재 전맹전농의 시청각장애인당사자로 1984년 오사카 시립 맹학교 졸업, 1985년 모모야마 학원 대학 사회학부에 진학 대학졸업 후 미국 NYU 대학원 "Deafness Rehabilitation(청각장애 재활)"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귀국해 오사카 맹농인 친우회 대표, 시청각 중복장애인 복지센터 헬렌켈러 자립지원센터 스마일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일본 최초 시청각장애인으로 안내견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후생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 카도카와 신이치로씨는 이번 온택트 세미나에서 시청각 중복장애인 복지센터 헬렌켈러 자립지원센터 스마일을 설립하게 된 계기와 진행하였던 3가지 사업(취업지원사업, 거택 도움 서비스, 그룹홈 개설)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국가정책위원회의 장애인정책위원으로서의 활동상황에 대해서도 전달하였습니다. 일본의 8개의 주된 장애인단체가 일본장애포럼 네트워크(JDF)를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UN장애인권리조약을 일본이 비준하기 전에 일본 내 법률을 정비하고 개정하도록 요구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시청각장애인의 인지도가 일본과 한국 모두 매우 낮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위원회의 장에 참가하여 시청각장애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정지훈 센터장은 "앞으로도 시청각장애인 세미나를 통해 선진국들의 발전된 상황들을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시청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빛을 주는
실로암 이야기 6

탄자니아 시각장애인 교육지원사업 & 우간다 시각장애학생 점자교과서 지원 현장 모니터링 및 현지 점역·교정사 역량강화교육 진행



문의: 국제장애인지원센터
02-880-0870~2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탄자니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탄자니아 5개 주의 5개 중등학교 시각장애교사 6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프로젝트 매니저인 탄자니아 시각장애인협회 모시지회 사무총장(Rumisha Masam)의 현지 교육과 국내 정보화 강사의 비대면 교육으로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정보화 교육은 10일간 20회 차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윈도우기초, 점자정보단말기 활용, MS오피스, 인터넷 활용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는 시각장애 교사들이 컴퓨터 기초부터 현장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익히고 실습 위주의 수업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최초 시각장애인 역사 교사이자 본 기관의 효명장학생 출신인 류창동(중암중학교 교사)씨가 인터넷 활용교육 강사로 참여하여 같은 시각장애인 당사자이며 교사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수업의 효과성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 그동안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했던 현지 모니터링 출장도 이번 정보화 교육 기간에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6월 6일에는 다르에스살람에 있는 탄자니아 교육원(TIE)을 방문하여 탄자니아 교육원장과 함께 올해 진행되는 점자교과서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6월 7일에는 정보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모시중학교를 방문하여 시각장애 교사들을 직접 만나 총 6대의 점자정보단말기를 전달하는 '점자정보단말기 기증식'을 진행하고, 정보화 교육을 참관하였습니다.

*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간다 시각장애학생 점자교과서 지원 및 제작역량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간다 시각장애 포용적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Uganda National Association of the Blind(UNAB)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점자출판시설 구축, 점역·교정사 자격제도 정립, 점자교과서 및 촉각 학습자료 제작·보급 등이 있습니다.

* 약 2년간 제작·보급한 우간다 초중등 점자교과서 총 8,100권에 대한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지 점역·교정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6월 6일부터 11일까지 총 6일간 우간다 현지를 직접 방문하였으며, 금번 모니터링은 점자교과서를 기증받은 우간다 맹학교 및 특수학급 통합학교들 중 총 4곳을 선정해 진행하였습니다.

* 같은 기간, UNAB 실로암 브레일 프레스(UNAB Siloam Braille Press)에서는 현지 점역·교정사 5명에 대한 역량 강화 심화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년여 동안 온라인 화상으로만 교육을 실시하다 처음으로 한국의 전문 강사들이 파견되어 직접 대면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점역사 교육은 수준별 점역 교육, 점자프린터 및 제본기 활용, 촉각 자료 제작을 위한 포토샵 및 입체 복사기 활용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교정사 교육은 점자정보단말기 세이카 활용 기술 및 교정 실무 심화 교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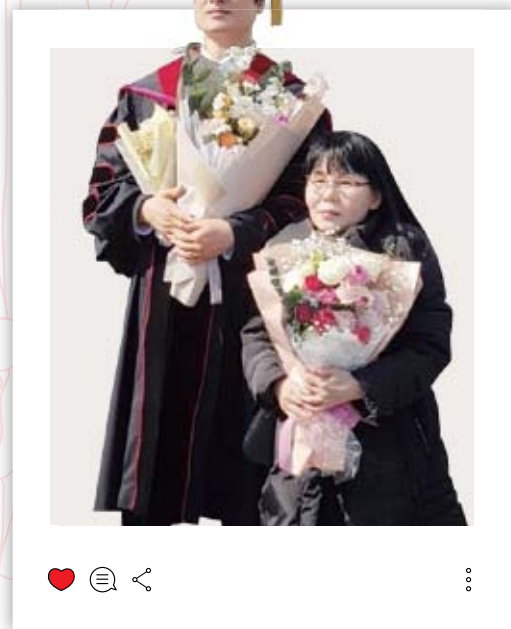
느리지만, 나답게, 아름답게. 희망의 '꽃'을 피우다

국내 1호 시청각장애인 박사 조영찬님의 이야기

66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집중하고 그것을 욕심내고는 하죠. 그렇지만 '없음'이 아닌 자신만의 '있음'에 집중하여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답게 사는 법을 정확히 알고 느리지만, 나답게, 아름답게 목표를 향해 걸어간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인고와 견딤 끝에 맺어진 결실에 어느 누구도 축복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 없이도 한순간도 살아 낼 수 없는 존재라 말하는 국내 1호 시청각장애인 박사, 조영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99



조영찬님 졸업식에서 배우자 김순호님과 함께

Q.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영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7년에 나사렛대학교 점자문헌정보학과에 입학했고 이듬해에 신학과로 전과한 다음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대원에서 목회학석사,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기독교상담학,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Q. 실로암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와는 어떤 인연이 있나요?

제가 15년간 공부를 해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졸업 후에 진로가 열리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비전이 보이지 않는 공부를 이렇게 힘겹게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회의가 몰려와서 공부에 대한 의욕을 유지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서 정지훈 센터장님께서 실로암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손수 저를 찾아오셔서 끝까지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독려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제 점자단말기가 과열된 탓에 수리를 위해 회사에 보낸 상황이었었는데 여분의 점자단말기를 주선해 주셔서 논문을 마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공부를 하게 된 계기와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하였을까요?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우선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에서 시청각장애인 대회가 개최되는 시기였는데 일본의 헬렌켈러로 불리는 후쿠시마 교수님께서 저희 부부를 대회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시청각장애인들이 활발하게 모임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교수님이 시청각장애인으로서 대학을 나와서 동경대 교수로 활약하고 있다는 것에 자극을 받고 그분이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사렛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릴 때부터 시청각장애 때문에 평범한 시각장애인으로 안마를 하며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작가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되려면 많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독학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후쿠시마 교수님과의 만남은 그러한 학구열에 도화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공부를 진행하며 힘이 들 때마다 제일 큰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있으신가요?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공부를 마쳤을 때 진로가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은 공부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이는 단연 제 옆자리입니다. 제 아내는 단순히 제 배우자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신 눈과 귀 대신에 내려주신 생명의 동아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길 아무것도 안 보이고 외로운 길이었지만 한결같이 제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있는 아내 덕분에 난 관들을 헤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Q.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의 심정은 어땠는지, 요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청각장애인에게 박사과정이란 깎아지른 암벽을 등반하는 것만 큼이나 벅찬 여정입니다. 그 길이 너무 험겨워서 도중에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힘든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았을 때의 기분은 한편 허탈하기도 했고 이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구나 하는 안도감과 해방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학위를 받은 이후에 비장애인 신학박사들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교회를 이끄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어느 쪽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니던 학교와 교회를 나와서 힐링과 휴식을 통해 삶의 여유를 회복해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제가 활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대안교회를 모색하면서 매주 지인들에게 온라인으로 문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시청각장애인' 이 아닌 '삼관인(三官人)' 으로 불려달라고 말씀 하였던는데, 내포된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한결같이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한 점을 꼬집어서 부르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장애를 뺀 다른 부분은 모두 비장애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 시각에 장애가 있다면 나머지 90%의 신체는 장애가 없는 건강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극소의 장애로 그 사람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삼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장애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인지와 사고를 왜곡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도 시각과 청각이라는 두 가지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비장애 상태인데 시각과 청각이 중복으로 장애를 입은 가장 극심한 장애인이라고 자꾸 강조하게 되면 시각과 청각을 뺀 나머지 세 가지

감각(후각·미각·촉각)마저 하찮고 미미한 것으로 축소되는 폐단이 따릅니다. 그래서 '없음' 중심의 용어를 '있음' 중심의 용어로 바뀌어 없는 것보다는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삼관인(三官人)'이라는 용어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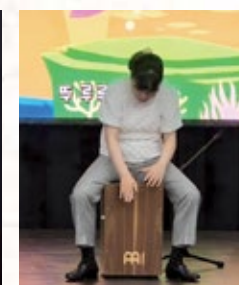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한국에서는 시청각장애인 신학박사가 활동할 무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공연 준비는 죽도록 시켜놓고 준비가 다 갖춰지니까 무대를 제공하지 않는 공연장과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마련해 주지 않고 있는 무대를 저 스스로 구축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아직은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가는 일부러 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가 활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안교회를 구상하고 모색하고 있고 그동안 겪어온 일들을 지면화 해서 책으로 만들어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삶의 여유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자타가 공인하는 힐링과 즐거움을 함께 맞출 수 있는 삶을 그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Q. 현재 '빛을 주는 실로암' 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노력 중인 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가는 길을 따르는 것은 자기만의 고유함을 꽃피우기 어렵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은 외롭고 고달프지만 그 길이 가장 자기답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고유한 빛깔과 향기를 피워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고와 견딤이 요청됩니다. 그 과정은 건디기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 그 열매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보람을 안겨다 줄 것이라는 희망을 꼭 붙들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시각이나 청각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희망이 없어진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만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공감, 재미, 콘텐츠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공연

시각장애인 문화예술공연과 함께하는 〈2022년 장애인식개선 토크콘서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는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진행하는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의 학교(10곳), 공공기관(5곳), 특수학교 장애인 시설(10곳) 총 25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강릉 왕산초등학교를 첫 시작으로 대전 한밭고등학교(4.26), 송파 가원중학교(5.2), 안성 경기창조고등학교(5.4), 서울정인학교(특수학교_6.2), 동대문구 진농초등학교(7.8), 강서구 가양초 병설유치원(7.19)에서 콘서트를 선보였습니다.

본 〈장애인식개선 토크콘서트〉는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관련 맹인전통예술단 및 시각·발달 중복장애로 이루어진 드림미에

술단의 문화예술공연과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이 담긴 스토리텔링식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접목한 토크콘서트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전문예술단의 대상별 맞춤형 레퍼토리 공연,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진행하는 인식개선 토크, 교육의 흥미와 재미를 높여주는 퀴즈, 시각장애인의 입장이 되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체험, 복지회에서 자체 제작한 시각장애인 캐릭터 '소리'와 점자 캐릭터 '웅이'가 진행하는 비대면(온라인 ZOOM) 교육이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 토크콘서트는 참여 대상에 맞춰서 동요 및 가요(모두 다 꽃이야, 마법의 성 등), 유명 OST 곡(You raise me up, 엘리제를 위하여, Isn't she lovely 등)을 선정하여 흥미를 유발하



고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해나감으로써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 및 공감 문화를 이끌고자 합니다.

사업을 담당하던 이창진 팀장은 "정서적인 변화를 위한 방법으로 음악예술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인 것을 2011년 본 법인 시각장애인 관련맹인전통예술단이 창단된 시점부터 진행한 수많은 공연에 참가한 관객들의 반응을 통해 체감할 수 있어 〈장애인식개선 토크콘서트〉를 기획하게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는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매년 학교 및 공공기관, 사업체,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교육, 캠페인, 전시회, 공연, 지역축제 등의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장애인식개선팀 02-880-0880~2



전문가가 알려주는 알면 쓸데 있는 꿀팁 정보

이번 주제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다양한 전공의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여행 회화 꿀팁'을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추세가 감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제한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는데요. 펜데믹에서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나라로 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면, 그토록 원했던 나라에 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해외여행할 때 상황별로 유용한 나라별 회화 모음! 그 꿀팁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 펜데믹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

* 엔데믹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스페인어 점역사로 일하고 있는 점역팀 이길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일본어 점역사로 일하고 있는 점역팀 김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음악점역사로 일하고 있는 효명음악팀 이지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음악점역사로 일하고 있는 효명음악팀 이완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국제장애인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입니다.

Q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본인들의 전공과 언어 특기를 살려 간단한 여행 회화 꿀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별로 원어와 독음을 부탁드립니다!
***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이태리어, 영어 회화 순서입니다.**

[상황 1] 여행의 시작, 공항에서

1) 호텔로 가는 버스는 어디에서 탈 수 있을까요?

¿Dónde puedo tomar el autobús para ir al hotel? / 돈데 뽀에도 또마르 엘 아우또부스 빠라 이르 알 오텔?

ホテル(こ)行(い)くバスはどこで乗(の)れますか。 / 호테루니 이쿠 바스와 도코데 노레마스카.

去酒店要坐哪辆公交车? /

취 지우디엔 야오 쭈어 나리양 공지야오 초어?

Dove posso prendere l'autobus per l'albergo? / 도베 포소 프렌데레 라우또부스 페르 알베르고?

Where can I take the bus to the hotel? / 웨얼 칸 아이 테이커 더 버스 투 더 호텔?

2) 렌터카를 빌리려고 해요. 어디서 빌릴 수 있을까요?

Quiero alquilar un coche. ¿Dónde puedo pedir prestado? / 끼에로 알킬라르 운 고크체. 돈데 뽀에도 페디르 프레스타도?

レンタカーを借(か)りようと思(おも)います。どこで借(か)りられますか。 / 렌터카-오 카리요-토 오모이마스. 도코데 카리라레마스카.

我想租一辆车, 在哪儿可以借? /

워 씨양 주 이 리양 초어, 짜이 나알 커이 지에?

Vorrei noleggiare la macchina da noleggio. Dove posso? / 보레이 놀렛자레 라 마끼나 다 놀렛조. 도베 포소?

I'm trying to rent a car. Where can I rent? / 아임 트라이잉 투 렌트 어 카. 웨얼 칸 아이 렌트?

Q 언어별로 독음까지 알려주시니 회화를 익히는 데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상황은 숙박 장소에서 사용하는 회화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상황 2] 호텔에서 체크인·체크아웃할 때

1) 조식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공되나요?

¿A qué hora empieza y termina el desayuno? / 아 깨 오라 엠빠에사 이 페르미나 엘 데사이우노?

朝食(ちようしょく)は朝(あさ)何時(なんじ)から何時(なんじ)までですか。 / 초-쇼쿠와 아사 난지카라 난지마데데스카.

早餐, 从早上几点提供到几点? /

자오찬, 총 자오상 지디엔 티공 따오 지디엔?

Potrei mangiare la colazione fra quanto tempo? / 포트레이 만자레 라 콜라찌오네 프라 칸토 템포?

When is the time for breakfast? /

웬 이즈 더 타임 포 브렉퍼스트?

2) 몇 시까지 체크아웃을 해야 할까요?

¿Hasta qué hora tengo que dejar la habitación? / 아스타 깨 오라 텡고 깨 데하르 라 아비따시온?

チェックアウトは何時(なんじ)までですか。 /

첵쿠아웃오와 난지마데데스카.

退房时间是几点? / 투이팡 쓰지엔 쓰 지 디엔?

A che ora è il check out? / 아 케 오라 에 일 체크 아웃?

What time is the checkout? / 윗 타임 이즈 더 첵쿠아웃?

Q 해외여행을 가면 현지의 유명 식당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한 일정 중 하나일 텐데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회화도 알려주세요.

[상황 3]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1) 음식을 추천해 주세요.

Recomiéndeme comida por favor. / 레꼬미엔데메 꼬미다 포르 파보르.

お勧(すす)めのメニューは何(なん)ですか。 /

오스스메노 메뉴와 난데스카.

请推荐一下好吃的。/ 칭 투이쩌엔 이씨야 하오 츠더.

Mi consigli un cibo. / 미 콘실리 운 치보.

Can you recommend a menu? / 캔 유 레코멘드 어 메뉴?

2) 계산서 부탁드립니다.

La cuenta, por favor. / 라 꾸엔따 포르 파보르.

お会計(かいけい)をお願い(ねが)い致(いた)します。 /

오카이케이 오네가이타시마스.

*추가 꿀팁! 일본에서는 '계산서'라는 단어를 보통 잘 쓰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주 쓰이는 '계산'으로 바꿔서 번역했습니다.

请给我结账。/ 칭 게이 워 지에팡.

Il conto, per favore. / 일 콘토 페르 파보레.

Can I have the bill, please? / 캔 아이 해브 더 빌 플리즈?

Q 추가 꿀팁까지 고맙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꼭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선물은 필수일 거 같아요. 그렇다면 해외에서 쇼핑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회화가 있을까요?

[상황 4] 쇼핑할 때

1) 제가 이 옷을 입어봐도 될까요?

¿Puedo probármela esta ropa? /

뿌에도 뿌로바르메 에스따 로빠?

この服(ふく)を試着(しちやく)してみてもいいですか。 /

코노 후쿠오 시차쿠 시테 미테모 이이데스카.

可以试穿这件衣服吗? / 커이 쓰 초완 썬어 짜엔 이푸 마?

Potrei provare questo vestito? /

포트레이 프로바레 쿠에스토 베스티토?

Can I try this on? / 캔 아이 트라이 디스 온?

2) 조금 더 큰/작은 사이즈의 옷이 있을까요?

¿Hay otra un poco más grande/pequeña? /

아이 오프라 운 뿌오 마스 그란데/빠게냐?

*추가 꿀팁! grande(그란데): 큰 / pequeña(빠게냐): 작은

もう少し(すこ)し大(おお)きい/小さい(ちい)さいサイズの服(ふく)がありますか。 /

모-스쿠시 오오키이 / 치이사이 사이즈노 후쿠가 아리마스카.

*추가 꿀팁! 大きい(오오키이): 큰 / 小さい(치이사이): 작은

有没有稍微大一点/少一点的衣服? /

요메이요 샤오웨이 따이디엔/오이디엔 더 이푸?

*추가 꿀팁! 大-(따이디엔): 큰 / 小-(샤오이디엔): 작은

C'è l'avete del più grande / piccolo vestito? / 체 라베테 델 퓨 그란데 / 피콜로 베스티토?

* 추가 꿀팁! grande(그란데): 큰 / piccolo(피콜로): 작은

Is there any bigger / smaller size for the clothes? / 이즈 데어 애니 비거 / 스몰러 사이즈 포 더 클로즈?

* 추가 꿀팁! bigger(비거): 큰 / smaller(스몰러): 작은

3) 얼마예요?

¿Cuánto cuesta? / 꾸안또 꾸에스타?

おいくらですか。 / 오이쿠라데스카.

多少钱? / 뚜어샤오치엔?

quant'è? / 콤테?

How much is it? / 하우 머치 이즈 잇?

Q 마지막으로 해외여행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회화가 있죠. 바로 물건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인데요. 특히 해외에서는 도난사고가 잦다 보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 5] 물건을 분실, 도난당했을 때

1) 가까운 경찰서가 어디에 있죠?

¿Dónde está la comisaría cercana? /

돈데 에스따 라 꼬미사리아 세르까냐?

一番(いちばん)近(ちか)い警察署(けいさつしょ)はどこですか。 /

이찌방 치카이 케이사츠쇼와 도코데스카.

这附近警署在哪里? / 쨌 푸진 징차 쭈 짜이 나리?

Dov'è la stazione di polizia nelle vicinanze? /

도베 라 스타찌오네 디 폴리찌아 넬레 비치난제?

Where is the nearest police station? /

웨얼 이즈 더 니어리스트 폴리스 스테이션?

2) 누가 제 가방을 훔쳐 갔어요?

Alguien robó mi bolsa. / 알기엔 로보 미 볼사.

誰(だれ)かに私(わたし)のカバン(かばん)を盗(ぬす)まれました。 /

다레카니 와타시노 카방오 누스마레마스카.

有人偷走了我的包。 / 요우런 투우 조우러 워 더 빠오.

Qualcuno ha rubato la mia borsa. /

칼쿠노 아 루바토 라 미아 보르사.

Someone stole my bag. / 씬원 스톨 마이 백.

* 이상으로 전공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여행 회화 꿀팁'이었습니다. '빛을 주는 실로암' 구독자분들 중에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위에 알려드린 꿀팁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즐겁고 안전한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소중한 이야기

<시소TV> 비하인드 스토리

👍 ft. 구독 & 좋아요 & 알람 설정 필수인거 아시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다양한 콘텐츠와 번뜩이는 아이디어들로 많은 구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식개선 유튜브 채널인 <시소TV>인데요.

<시소TV>는 '시각장애인들의 소중한 이야기'라는 뜻으로 지난 2020년 9월 1일 오픈하여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일상과 문화예술활동, 권익옹호활동, 장애계이슈 등을 소개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소TV> 유튜브 채널 담당자가 직접 뽑은 영상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본 영상도 재미있지만,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영상을 시청한다면 그 재미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소TV>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나보러 가실까요?



1. 신년특집 '시각장애인도 해돋이를 볼 수 있나요?'

2022년 <시소TV>를 여는 새해 첫 영상으로서 한 해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 함께 해돋이를 보러 가는 기획으로 구성. '해돋이'라는 시각적 이벤트를 시각장애인도 함께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획된 인식개선 영상.

비하인드스토리

동해의 일출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서울 일출 명소 중 하나인 선유도에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새벽 6시에 집결하여 겨울 칼바람을 가르며 카메라와 삼각대 장비를 메고 좋은 자리를 위해 부리나케 뛰어다녔습니다. 이미 좋은 명당은 일부 전문 사진사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자리 실랑이에 어느새 해가 떠버리고 건물에 가려져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손과 발은 물론, 입도 얼어서 고생했던 촬영이었지만 기억에 남는 기획이었습니다.



4. 시각장애인이 놀이기구를 탔을 때

위드 코로나를 맞아 야외활동이 많아진 봄날. 날들이 하면 떠오르는 테마파크와 놀이 기구를 과연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획 영상.

비하인드스토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나들이를 가는 기억이 가물거울한데요. 이제 위드 코로나를 맞아 사람들의 방문 선호도가 높은 테마파크 중 롯데월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롯데월드에 입장하려면 무조건 자유이용권을 사야 하는 것을 아세요? 실명 이후 처음 놀이 기구를 탄다는 출연자들은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놀이기구를 체험했습니다. 안압이 높아져 다소 힘든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멋지게 촬영에 임해주셨는데요.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그 짜릿한 체험기는 실감 나는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2. 시각장애 웃놀이 '그들이 모인 이유'

설날 명절을 맞아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인 웃놀이를 시각장애인도 어떻게 즐기는지 보여주고, 더불어 시각장애인 웃놀이를 소개하는 기획 영상.

비하인드스토리

시각장애인 웃놀이편은 홍콩 누아르 분위기에 캠블러를 연상시키는 코믹한 설정으로 최종 승부에서 진 팀이 벌칙으로 팔복 5대 맞기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실감 나는 연출을 위해 출연자가 팔복 5대를 맞았는데, 순간 카메라가 흔들려서 다시 재촬영에 돌입했다는 재밌고도 슬픈 비하인드가 있어요. 줄지에 연타로 10대의 벌칙을 받은 출연자의 어머니는 유튜브 영상을 볼 때마다 농담으로 '아들 잡는 사람' 나왔다고 말씀하셨네요.



5. 목소리 이상형 월드컵_남자 편

청각이 예민한 시각장애의 장애 특성을 살려서 기획된 '목소리 이상형 월드컵'. 시각장애인들이 목소리만으로 이상형을 찾는다는 컨셉으로 여성 시각장애인 3명으로 구성된 '목소리 이상형 월드컵_여자 편'의 호응에 힘입어 남자 편도 추가 제작된 인기 기획 영상.

비하인드스토리

출연자들이 시종일관 얼굴에 미소를 띠며 촬영에 임했고,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상황 연출과 MZ 세대다운 솔직 발랄한 토크로 촬영 중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목소리 이상형 월드컵 1,2부에 출연한 3명의 여성, 남성 시각장애인들이 대상으로 솔로탈출 데이트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자는 신박한 제작 아이템도 나와 남자 출연자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3. 장애예술무대 D.D.DA 강유경 '내맘의 강물'

2022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인 장애예술무대 D.D.DA는 '장애예술무대 첫발을 디디다'라는 뜻으로 장애예술인들에게 무대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영상 제작을 통해 유튜브에 게시, 시각장애 뿐만 아니라 장애 전 영역에 걸친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임.

비하인드스토리

장애예술무대 D.D.DA의 첫 문을 여는 무대는 시각장애 소프라노 강유경님의 가곡 독창을 감성적인 뮤직비디오로 구성하여 선보였는데요. 야외 촬영은 항상 애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울에 강원도로 떠나 노래 가사에 나오는 강물과 새파란 하늘, 구름, 비바람 등 최대한 가사가 연상되는 장소를 모색하였지만 현장 강물은 얼어있어서 스텝들의 마음도 얼어버렸지요. 하지만 힘을 내서 녹아있는 강물을 찾아서 영상을 찍었고, 날씨 연출을 위해 색 보정으로 밤 늦도록 편집하느라 애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6. 장애인의 날 특집 '시각장애인 대중교통 활용'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관심이 높은 이동 편의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시각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버스, 지하철, 복지콜 서비스를 체험한 미니 다큐멘터리 영상.

비하인드스토리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실태를 보여드리기 위해 3가지의 이동 수단을 표현하느라 촬영팀이 각기 편성 운영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촬영 제한이 있어 영상 촬영용 카메라 대신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느라 앵글이 흔들리기도 했으며, 버스 내부 촬영하는 도중 승객분이 촬영을 하지 말라 달라는 요청이 있어 중간에 촬영을 끊었던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만큼 어려움이 많았던 촬영이었습니다.



눈 건강에 관심 있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

안구 건조증편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인공눈물 혹은 안약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안구 건조증은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흔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익숙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볍게만 넘기던 안구 건조증이 실은 완치가 어렵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번 편은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안구 건조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구 건조증의 증상부터 예방법까지 면밀히 확인해 볼까요?



안구 건조증의 정의 및 증상

안구 건조증이란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하거나, 눈물 구성 성분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안구 표면이 손상되어 눈이 시리고 자극감, 이물감, 건조감 등의 자극 증상을 느끼게 되는 눈의 질환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눈의 윤활제와 같은 눈물이 마르거나 흐르지 않아 눈(안구) 표면이 쉽게 손상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눈이 쉽게 피로해져 충혈이 잘되고, 눈을 잘 뜰 수가 없으며 심한 경우에는 두통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야가 흐리다거나, 평상시보다 빛이 눈부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겨울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원인으로서는 계절 특성상 건조하고 햇볕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물론 여름에는 선풍기와 에어컨의 바람으로 인해 안구가 건조해져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젊은 층의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

안구 건조증은 전 세계 인구의 약 20%가량이 겪는 아주 흔한 질병인데요. 보통은 노화의 일종으로 40대 이후의 환자들이 많은 것이 안구 건조증의 특징이었다면, 요즘 들어서는 TV, 스마트폰, 컴퓨터, 공해, 스트레스, 외부 자극, 운전, 독서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젊은 층의 안구 건조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현대인의 생활 패턴은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기 아주 쉬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거나 혹은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안구 건조증의 다양한 원인

앞서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젊은 층의 안구 건조증이 급증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안구 건조증의 원인은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속눈썹이 눈에 닿아서 눈물을 쓸어가거나 상처를 내는 경우, 결막염으로 인해 염증이 생겨서 눈물 생성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분비선(마이봄샘 등)에 문제가 생겨서 눈을 깜빡일 때마다 오히려 눈물을 빼앗기는 경우,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한 경우 등이 있다고 하네요. 만약 염증이 주된 원인이라면, 염증을 치료해 주어야만 정상적인 눈물 분비가 가능하기에 인공눈물뿐만 아니라 버티민을 키우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병원에 방문하여 원인에 맞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구 건조증 경과와 합병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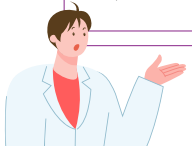
안구 건조증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기에 완치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치의 개념보다는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법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요. 염증이 원인인 분들은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법 중 본인의 눈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성안이 심할 경우 각막이 말라 시력이 심하게 저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안구 건조증의 예방법

눈을 피로하게 만드는 게 현재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안구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실천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눈을 자주 깜빡여주고 장기간의 컴퓨터 작업이나 게임기 사용, 독서 등을 피하고 틈틈이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생활한다면 눈이 쉽게 건조해지니 인공눈물을 자주 넣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정확한 원인에 따른 처방을 진행해야 하니 병원에 방문하여 본인의 눈 건강에 맞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일상 속 예방법도 있는데요. 실내에서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멀리하고 가습기를 틀어놓는 등 환경을 건조하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네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비타민 C, 블루베리, 견과류, 짙은 녹색 채소, 현미, 콩, 생선 등의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원인

1. 눈물 분비 저하
2. 눈물의 과도한 증발
3. 안구 표면의 염증
4. 눈물샘의 염증
5. 마이봄샘의 기능 저하
6. 나이의 증가
7. 약물
8. 컴퓨터 사용, 콘택트렌즈 착용
9. 쇼그렌 증후군, 스티븐존슨 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 유전포창 등의 질환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나무위키

누군가를 위해 나눔을 실천한다면 나의 행복은 더 커질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실천은 어렵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따뜻한 나눔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항상 품고 살 거예요.

올 한 해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반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401-570156(예금주: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하나은행 577-810008-22104(예금주: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국제장애인지원 후원계좌

하나은행 577-910013-06204(예금주: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CMS 정기자동이체 신청

전화문의: 나눔홍보팀 02-880-0860~4



후원안내 바로가기



해피빈 바로가기

귀하가 후원한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1월~6월 후원 내역



후원금 보고

(단위: 원)

구분	복지관후원	개인수술후원	효명의집	복지회후원	국제후원	총액
1월	11,852,672	485,000	1,775,000	4,354,900	1,211,225	19,678,797
2월	19,622,280	395,000	8,256,800	2,561,000	2,191,725	33,026,805
3월	7,680,000	955,000	3,771,300	2,399,350	879,520	15,685,170
4월	15,539,800	825,000	2,733,440	3,493,000	1,334,150	23,925,390
5월	4,754,000	445,000	6,572,900	3,757,400	1,787,625	17,316,925
6월	7,024,495	745,000	1,510,000	4,252,460	3,661,820	17,193,775
총액(영역별)	66,473,247	3,850,000	24,619,440	20,818,110	11,066,065	126,826,862

후원자(단체) 명단

복지관 후원

강동희 강미숙 김미혜 김민석 강성호 강유경 강은아 강은영 강은희 강자은 강태우 강하라 강현희 고도경 고미미 고선용 곽예은 곽정아 곽현용 곽현우 구수경 구희진 국미혜 권숙희 권예은 권정희 권희정 김해정 김경숙 김경순 김경아 김경진 김근희 김근하 김기동 김기쁨 김기택 김나현 김다혜 김대현 김도연 김명애 김미경 김마성 김미영 김민경 김민석 김민정 김민지 김범호 김병노 김보미 김보정 김보현 김상수 김상영 김서연 김선애 김선주 김선하 김성민 김성주 김성화 김성훈 김소영 김소희 김송이 김 수 김수진 김숙현 김순호 김아름 김애리 김양수 김영미 김여서 김영진 김예람 김유빈 김유진 김윤경 김윤진 김윤호 김은경 김은옥 김익성 김인애 김장환 김재환 김정미 김정은 김정태 김종민 김주원 김 증 김지숙 김지연 김지옥 김지은 김지현 김진수 김진주 김진하 김진현 김창섭 김천중 김충현 김태희 김하연 김 한 김한나 김해인 김항미 김현도 김현숙 김형진 김형준 김호준 김화현 김효원 김효정 김희선 김희영 김희재 나광민 나명재 나민형 나영진 남기윤 남선혜 남정환 남지현 노원태 노위제 노정우 노하영 노형석 노형지 노훈희 노현수 류대영 류새미 류재훈 류 진 모상은 문교성 문기섭 문기호 문소원 문소희 문애정 문홍수 문희천 민경나 민광기 민길자 민수진 박경숙 박귀영 박다현 박대삼 박두홍 박미경 박병규 박상은 박석연 박선희 박세근 박승현 박수진 박수철 박양래 박여민 박영순 박옥희 박윤일 박유민 박은민 박은애 박정미 박정은 박재우 박주영 박주혁 박주희 박찬미 박찬양 박찬희 박하니 박한나 박현우 박환호 박호진 박희경 박희선 방미애 방하준 배재현 배지혜 배지희 백소연 백소복 백영희 변도규 변동훈 서애리 서용호 서유정 서정범 서정석 서희경 선 중 손소현 송경원 송보라 송소연 송승호 송유정 송은수 송정미 송정화 송지민 송하영 송해연 신경희 신다원 신동선 신사도 신수진 신영은 신중현 신지희 신혜경 신효숙 삼관섭 삼규호 심재숙 안가람 안나현 안미숙 안수빈 안해솔 안현미 안현주 안형진 양명신 양민정 양지혜 양혜리 엄유라 엄현희 엄기연 오세용 오순주 오승규 오승범 오승주 오정목 오지선 오호정 우창민 원영미 유미애 유한순 유현서 유혜승 윤경진 윤나라 윤대현 윤두균 윤보라 윤보람 윤성재 윤소정 윤운이 윤이근 윤재영 윤 정 윤정원 윤주영 윤지원 이광성 이기효 이길원 이다솔 이동형 이로서 이만숙 이연우 이명원 이명재 이문애 이미경 이미영 이민경 이민환 이부현 이상국 이상수 이상인 이상철 이선민 이실한 이수인 이슬기 이승민 이승화 이연빈 이연수 이예성 이예은 이예일 이예찬 이완규 이요한 이우현 이유진 이윤정 이은경 이은무 이인애 이재용 이재은 이재혁 이재민 이정아 이정원 이정인 이정현 이준우 이지선 이지향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지현 이지훈 이진용 이진중 이진희 이찬신 이찬영 이찬주 이창진 이창현 이창호 이하영 이하은 이하은 이향수 이현주 이혜승 이혜지 이 훈 임강민 임명숙 임성민 임수정 임아론 임월진 임준희 임지수 임재민 임재영 임재은 임하연 임현재 장선희 장성호 장수진 장예솔 장원선 장은경 장은혜 장지혜 장한솔 전경선 전다연 전대영 전아름 전영숙 정근우 정미경 정민경 정민지 정보성 정봉은 정분영 정 선 정성민 정성호 정수림 정수원 정스런 정승원 정연상 정연자 정은경 정인자 정주경 정준목 정준용 정지애 정지혜 정태준 정하나 정현정 정혜진 조남주 조은 조도현 조두현 조미경 조민지 조승아 조윤희 조영수 조예령 조원영 조유진 조은진 조은희 조인소 조지연 조현상 좌예솔 주보라 주재은 주희진 지소연 지현민 진보라 진소연 진유선 채예민 채준우 천소영 최규선 최덕영 최문섭 최승원 최영민 최영성 최영아 최 윤 최은성 최재석 최종원 최찬삼 최창홍 최향기 추문기 탁향우 하영호 하은성 하종백 하혜민 한상민 한서아 한숙자 한승진 한은지 한재경 한재용 한태장 한혜정 함요한 함지연 허강우 허 준 현병천 홍건용 홍기범 홍성현 홍세진 호수정 홍승호 홍영정 홍유정 홍의진 홍지나 홍지희 황경신 황규범 황소영 황승교 황연희 황영주 황우경 황정수 황주연 황지현 Ton D Pham
김은순증 네이버 도림교회 워더스해운항공 부산어묵 삼성생명 서울시장에인복지관협회 수협은행(봉천동지점) 신림제일교회 신선식품 쓰촨칸컴퍼니 아모데 아이디어 중앙홀딩스 콩짜짜쥐 해피빈 UK ONLINE GIVING FOUNDATION

효명의집 후원

권순현 김경민 김덕규 김무경 김미경 김민경 김선태 김순희 김은철 김은혜 김은희 김인자 김재훈 김정자 김정현 김지혜 김태웅 김태용 김태훈 김형도 김희직 남성우 박성일 박용순 박은애 박인수 박주희 신혜경 안미숙 오창래 유홍진 윤영기 윤찬호 이강선 이강일 이광열 이순희 이숙옥 이영숙 이영순 이영태 이영석 이은경 이재영 이진실 이현규 이혜지 임영희 장혜순 전승미 정구연 정성민 정세훈 정진아 조경조 조미경 조성일 조성훈 진순복 최동익 최영아 최영훈 최준호 한재근 한형석 함은창 함지훈 함현식 현재순 황선교 황진향 남원추어탕 네이버파이낸셜 무지개풀 아워홈 태원엘리베이터 한국장애인개발원 해피빈

복지회 후원

권수진 권영진 김경애 김광현 김남식 김대민 김도은 김서윤 김성일 김성준 김성훈 김소영 김수희 김유빈 김은수 김은옥 김종걸 김지연 김진현 나병택 남정환 노하영 노현기 류영태 류 청 맹석재 박상은 박성철 박 술 박우주 박은애 박지선 박옥자 서범수 소슬라미 신사도 신영실 양하은 양한나솔 엄예은 오은희 오정희 위승윤 윤재훈 이계만 이동영 이범준 이상용 이지연 이지현 이하나 이현아 임영희 장기홍 장민경 조대희 조재훈 조현상 최선자 최은희 최재호 현진수 흥원기 황문선 황선민 경기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관악구청 통일교회 따뜻한하루 비앤씨 삼성생명 서울시장에인직업재활시설협회 셀바스헬스케어 송파구청 실로암안과병원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인디펜던트 카페모아(마포중앙도서관점) 해피빈 회복나눔네트워크 LG이노텍

국제장애인지원 후원

권성옥 김기람 김두선 김미경 김성민 김성일 김은성 김학준 김현정 김혜인 김혜준 남정환 남지현 노하영 노형석 류영태 박경숙 박대삼 박명수 방귀남 서효정 신사도 안해솔 유아영 이광형 이길원 이민경 이석영 이윤화 이종순 이지연 이창진 이창현 이해양 정은경 정지혜 정지호 정현진 최동민 최재호 한재준 한정식 홍지나 황상숙 하늘샘교회 효명교회

개인수술후원

강주현 박정화 설상수 선관정 오영옥 오진옥 윤선준 이경희 이규림 이상선 이상훈 전순금 정향산 최유진 최자은 한태장 허한수 황지윤 성산중앙교회 투데코

* 후원금은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쓰입니다.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도 따뜻한 나눔을 주셔서 다시 한 번 후원자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

여러분의 행복한 나날들과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